

《축 사》
《祝 辞》

김 득린
金 得麟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韓國社会福祉協議会 會長

축 사



김 득린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존경하는 이토 이사오 유니벨재단 이사장님, 오하시 겐사꾸 일본 사회복지교육학 교연맹 회장님, 윤기 마음의 가족 이사장님, 김성이 이화여자대학교 교수님, 내외 귀빈과 사회복지인 여러분!

제5회 한·일 마음의 교류 심포지엄이 성대하게 개최됨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그리고 한·일 양국 간의 우호 증진과 사회복지발전을 위해 헌신·봉사하고 계시는 여러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대한민국과 일본은 그 동안 국민 모두가 함께 노력한 결과 세계적으로 잘사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21세기에 들어서서 많은 국내외적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제도가 성숙됨에 따라 주민들의 복지에 대한 기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모든 민족이 하나의 무대 위에서 살아가는 지구촌시대를 맞아 국가 간의 인구 이동이 전혀 이상스럽게 느껴지지 않는 사회가 되었습니다. 또한 저출산과 고령화가 국가생존의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지역복지, 다문화, 노인요양보험 등 한·일 양국이 당면한 공통 과제를 가지고 심포지엄을 갖는 것은 참으로 뜻있고 값진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늘날의 국제사회는 열린시대, 세계화시대입니다. 정부가 모든 것을 주도하는 시대는 지나갔으며, 정부와 지역주민이 함께 사회복지의 주체로 나서야 합니다.

아울러 인류의 생존과 번영을 위해 국가 간의 협력이 증진되어야 합니다.
특히 한·일 양국은 지정학적 조건과 사회문화적 여건이 유사하므로 더더욱 힘을
합쳐 세계의 중심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심포지엄을 통해 한·일 양국이 공존공영하는 미래를 개척해나
갈 수 있는 풍성한 결실을 거두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번 행사를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기울여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기원합니
다.

감사합니다.

祝 辞



金 得麟
韓国社会福祉協議会
会長

尊敬するユニバーサル財団の伊藤勲理事長様、日本社会福祉教育学校連盟会の大橋謙策会長様、こころの家族の尹基理事長様、梨花女子大学の金聖二教授様、来賓と社会福祉関係の皆様、第5回日韓こころの交流シンポジウムが盛大に開催されることを心からお祝い申し上げます。

また日韓両国間の友好増進と社会福祉発展のために献身的に尽力されておられる皆様に尊敬と感謝を表します。

大韓民国と日本は近年、国民が努力した結果、世界的に豊かな国になりました。しかし、21世紀に入り、多くの国内的な課題にも直面しております。地方自治制度が成熟するにつれ、住民の福祉に対する期待が急増し、すべての民族が一つの舞台上で生きるグローバル時代を迎え、国家間の人口移動が自然に感じられる時代になりました。また、少子高齢化が国家存亡の問題として浮上しております。

このような時期に地域福祉、多文化、老人療養保健等、日韓両国が当面する共通課題でシンポジウムを開催することは、甚だ意義深いことであると思います。

周知のごとく、今日の国際社会は開かれた時代、世界的なグローバル化時代であります。政府が全てを主導する時代は過ぎ、政府と地域住民が共に社会福祉の主体として役割を果さなければなりません。

さらに、人類の生存と繁栄のため、国家間の協力が増進されなければなりません。特に、日韓両国は地政学的条件と社会文化的与件が類似しており、より一層力を合わ

せて世界の中心的な国家になるべきと思います。

本日のシンポジウムを通じて、日韓両国が共存共栄する未来を開拓して行くことができるよう、その成果に期待申し上げます。

最後に、今回のシンポジウムのために多くの時間と努力を惜しまず、尽力された関係者の皆様に深く感謝し、皆様のご健康とご繁栄をお祈り申し上げます。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